

# NEWS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광주방문의 해’ 글로벌 관광객 잡는다

###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우주궤도 진입 지상국과 교신

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위성이 미국에서 발사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정찰위성 4호기(SAR)가 이날 오전 9시48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으며, 우주 궤도에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대북 감시망이 더 촘촘해진다 는 의미다.

이날 4호기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19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막)이 분리됐다. 발사 15분 만인 10시 3분 쯤 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4호기는 낮 12시 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켈컨9이 발사된 지 2시간 39분 만이다.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수 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1면 ‘신안 해상풍력’서 계속

신안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전략도 마련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핵심 부품인 허브구조물, 타워, 케이ابل 등 기자재 기업들을 유치해 목포신항과 대불산단 일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은 풍력 업계에도 희소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정체 상태였던 한국 해상풍력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의 제도적 기반도 탄탄해졌다.

이와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독심과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부 장관 면담,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설득 작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을 일찍이 읽고 도정 전반에 녹여온 그의 정책 감각과 실행력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대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전남이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여행업계 초청 ‘소년의 길’ 등 콘텐츠 홍보

### 내달 영국 인플루언서 팸투어 로컬 스토리텔링 코스 준비

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오사카 익스포 등 국제행사 광주 홍보관 운영 등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본격 나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관광공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21명을 초청, 22~23일 이틀간 광주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고 지역특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호남광역권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팸투어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관광공공기관이 공동 기획하고,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협업해 진행 중이다.

팸투어 전체 일정은 21~25일이며, 광주는 22~23일 이틀간이다. 앞서 21~22일에는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했고, 24일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다.

‘광주 팸투어’는 광주의 역사성과 민주



제7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화 도시임을 강조한 특화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5·18민주화운동 테마코스 ‘소년의 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일빌딩 245, 광주향교 등을 방문한다.

광주시는 참가자들이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을 점거한다. 참가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관광 상품화와 단체관광

유치 확대를 위한 후속 실무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다음달 영국의 대표 여행 인플루언서를 초청, ‘제2차 글로벌 팸투어’도 추진한다.

2차에서는 동명동 여행자의 ZIP(카페거리), 전일빌딩245,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수재막걸리 체험 등 광주의 로컬과 이야기를 담은 명소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선보인다.

제2차 팸투어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오는 6월4일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열리는 방한관광상담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일본과 대만 시장을 겨냥해 5월 중 ‘2025 오사카 익스포’와 ‘2025 타이베이·신베이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 광

주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마케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동남아와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과 현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2025 광주방문의 해’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 5년 연속 행안부 ‘청년마을’ 선정 쾌거

### 보성 전체차림 마을...녹차식품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다.

전남도는 2018년 목포 관창마을이 처음 지정된 이래, 2021년 신안 주성수심마을, 2022년 강진 병영창작사단, 2023년 고흥 신촌꿈이름마을, 2024년 영암 달빛

포레스트에 이어 올해 보성 전체차(茶)림(LAB) 마을이 선정돼 5년 연속 해당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선정된 마을은 3년간 최대 6억원이 지원된다.

첫 해에 2억원이 지급되며 이후 사업 성과에 따라 2년간 연 2억원씩 추가 지원된다.

보성 전체차림 마을은 이를 통해 보성

녹차를 주제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마을 유휴 공간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과 함께 차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청년마을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마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교황 장례식, 26일 성베드로 대성당서 엄수

### 오늘부터 일반인 조문 가능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수된다. ▶관련기사 14면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령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 주재로 열린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현재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안치된 교황의 관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일반 대중도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된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이던 교황은 전남 뇌졸중과 이에 따른 심부전증으로 88세에 선종했다. 연합뉴스

## 유류세 인하폭 일부 축소...휘발유 10%·경유 15% ℓ당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정부 “매점매석 방지”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ℓ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부탄은 다음 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기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증 및 특허** 사회적기업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건비담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바닥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정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함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행정민청 거문도동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심항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령로 1번길 51 ☎ 061-285-6100